한자음 교수를 통한 한자어 교육 연구

- 일본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김유정*

〈차 례〉

1. 서론
2. 한자음 교수 모형 개발과 실험
   1) 실험 대상
   2) 실험 방법
3. 한자음 학습 결과
   1) 한자음 학습 전후 비교
   2) 한자음 학습 단계에 대한 평가
4. 한자음과 한자어 학습 방안에 관한 기타 논의들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자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자음' 교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학습이 한자어 어휘력의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습 전-학습-학습 후 단계의 교수 모형을 개발하고 실험을 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음 학습으로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어휘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한자음 학습과 이후 한자어 형성 학습을 통해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자어 이해 어휘뿐만 아니라 생성 어휘도 함께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한자음 학습 시기는 초급과 중급에서 더 타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자음 학습을 위한 교수 모형의 개발이라는 의의와 함께 한자음 학습의 유용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자어, 한자음, 일본인 학습자, 중국인 학습자, 한자어 형성 학습, 한자음 교수 모형

1. 서 론

현재까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학습이나 습득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강현화(2001)의 기초 한자어 연구, 문금현(2003)의 한자어 학습 방안 연구, 윤재민(2012)의 한자어 학습의 필요성 연구, 박덕유(2009)와 靳葆强(2012)에서 이루어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유형별 습득 연구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첫째,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중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주장이 되면서 평균 60~70%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다. 또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선정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6,000개 중 55%가 한자어였으며, 문금현(2000)에서 드라마 대본인 구어 자료 중 한자어의 비중이 62.59%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한자어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자어의 비중은 한자어 학습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1) 한국의 유의어와 동음이의어는 한자어가 많다. 따라서 표현력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2) 개념어는 대부분 한자어가 많다.
(3) 기초 어휘에 비해 전문적 어휘는 한자어가 발달되어 있다.
(4) 중국과 일본에서 쓰는 어휘와 같은 것이 많다.
(5) 중국과 일본의 어휘와 다른 것도 있다.
(6) 조어력이 뛰어나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 중 한자권 학습자의 비중이 크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76%, 일본인 2.4%를 포함한 한자권 학습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 이러한 학습자의 비중은 학습자의 변인을 고려하여 그들에 맞는 어휘 학습 전략을 강화하여 어휘 확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기초 한자 목록과 한자어의 유형별 특징, 한자어의 구성 방식에 따른 학습법, 한자어 자모 음가 지도를 통한 한자어 학습 등이 이루어져 왔다.[3)]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 한자어 학습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한자권 학습자들이 한자어 어휘를 쉽게 생성해내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 한국 한자어와 모국어 어휘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 이충우(1997:90)에서 부분 발췌하였다. 이 외에 김광해(1997), 안승덕(1993) 등에서 한자어와 한자 교육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2) 박덕유(2011:96)에서 참조하였다.
3) 한자어의 구성 방식에 따른 학습법은 문금현(2003), 한자어 자모 음가 지도를 통한 한자어 학습은 박덕유(2011)를 들 수 있다.

(3) 개념어, 전문어, 유의어, 동음이의어 등의 한자어 학습을 용이하게 하여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른 어휘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들 중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내용에 주목하여, 한자권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어휘 확장의 방법으로 한자(漢字)의 학습이 아니라 한자어(漢字語)의 학습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4)] 그 중 한자음의 학습을 유도하는 교수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한자어 목록, 한자어 유형(同形同義, 同形異議, 異形同義, 近形同義), 자모 음가 지도에 집중한 것과 달리 개별 한자음에 대한 讀音에 집중하여 어휘 학습 전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자음 학습에 대한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연구들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한자음 학습의 정당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자음 학습의 정당성>

첫째, 문금현(2003:20)에서 "한자권 학습자의 경우는 자신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한자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으므로 한자 자체에 대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치 않다. 이들에게는 한자의 독음과 의미 습득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판치후이(2002)에서는 남북한언어비교사전에 수록된 10,000

4) 물론 일본, 중국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한자와 다른 한자가 한국어에 있음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자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약자(略字)와 유사한 형식으로 쓰이는 등 기본적으로 한자 자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필요는 적다. 따라서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한자를 사용해서 형성된 단어를 이해하고 혹은 한자를 이용해서 단어를 형성하는 데 대한 학습에 집중한다.

개의 어휘 중 3,901개의 쌍음절어를 추출하여 현대한어사전과 중한사전의 어휘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동형어는 3,326개로 85.26%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동형동음동의어는 2,860개(85.98%)로 나타났다.[5] 이러한 동형동음동의어의 높은 비중은 불필요한 한자나 한자어에 대한 부담보다는 한국 한자음에 대한 학습을 통해 많은 수의 한자어를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자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오은희(2009)에서는 한자권과 비한자권 학습자들의 어휘 추측 전략에 대해 살폈는데 그 중에서 한자권 학습자들이 '유사 발음 활용하기'의 활용 빈도(25.40%)가 '문맥 활용하기(37.04%)' 다음으로 많았으며, 그 성공률은 '문맥 활용하기(60%)'보다 더 높은 79.17%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 어휘 추측 전략 중 '유사 발음 활용하기'는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모국어나 외국어 어휘들의 유사한 발음을 연상하여 모르는 어휘의 의미 추측 전략'이다. 따라서 한자어권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모국어와 유사한 한자어 발음을 상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한자어 발음을 교육하여 어휘 의미 추측의 양을 늘리는 것 또한 어휘 확장을 위해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7]

5) 이 내용은 김진아(2005:27)에서 인용하였다.

6) '문맥 활용하기'의 예로는 "<당당하다> 이거…당당하다…음…계속 읽어보면 이거 앞에 이야기하고 반대의 뜻이죠. 앞에서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여기 '그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당당하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뜻이죠."이고, '유사 발음 활용하기'는 "<보편화> '화'는 알아요. 보편은…보편 ふへん(普遍?) 일본어 발음 비슷하니까 이거 같아요. 이거 뜻이…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와 "≪소화불량≫이 단어… xiā huà 소화(消化) 중국말하고 같아요. 불량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뜻이 소화가 잘 못해요."(오은희, 2009:48-52)

7) 이는 Hasstrup(1987), Chern(1993), Paribakht&Wesche(1999)에서도 어휘 추론 시 사용하는 전략으로 '단어 발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오은희, 2009:45에서 인용)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자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확장 전략으로 '한자음 교수의 모형'을 개발하고 실험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한자음 교수 모형 개발과 실험

1) 실험 대상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A대학교 한국어 학습 기관의 한자권 학습자 6명(일본 5, 중국 1)이다.[8] 한국어 숙달도 정도를 보면, 2급 수료자 2명, 4급 수료자 2명, 5급 수료자 1명, 6급 수료자 1명이다. 이 실험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참여가 적어서 이것이 중국인 학습자의 일반적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 학습자와 다른 특징을 드러내는 사항과 한자권 학습자에 포함될 수 있는 보편적 특성은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명의 실험자들만이 대상이 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실험의 신뢰도를 위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성실히 임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서, 실험 신뢰도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9]

8) 이 논문에서는 일본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를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단, 실험에 참여한 연구자의 수가 많지 않고 특히 중국인 학습자의 참여가 적어 한자권 학습자라는 부제를 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학습자와의 비교를 통한 한자권 학습자들의 보편적 특성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서론에 적은 바와 같이, 한자음 학습에 대한 이론적인 전제 하에 실제로 한자음을 교수할 수 있는 교수 모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교수 모형 개발 이후에 학습 결과를 관찰하는 것은 이론적 전제와 모형 개발의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표 1> 실험 참가 학습자

	가	나	다	라	마	바
국적	일본	일본	일본	중국	일본	일본
나이	23	29	24	23	27	27
성별	여	남	여	여	남	남
등급	2	2	4	4	5	6
한국어 교육정도	일본 학원 한-3개월	일본 독학 한-3개월	일본대학 한-6개월	한-13개월	일본 독학 한-9개월	한-21개월
직업	무	일본어 강사	무	무	무	무
학습동기	일반적 관심	학문적 관심	일반적 관심	대학진학	번역	취업

2) 실험 방법

<1> 학습 전 단계

<1-1> 설문 조사 실시

학습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학습자 분석을 하였다. 조사 내용으로 한자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인 한자음 학습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의도적인

9) 학습자를 2급 수료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실험 설계 시에 중급 단계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한자어 학습에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 신뢰도에 있어서는 이 실험 자체가 한자음 교수 모형 개발에 초점을 둔 것이고, 앞에서 언급한 <한자음 학습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므로, 실험 참가자의 수가 적은 것이 연구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은 한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한자음 학습 경험이라는 것은 교육 기관에서 교수자의 교수 없이도 스스로 한자음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문장에서 한국 어휘를 보고 한자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상, 중, 하로 표시하게 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학습자 스스로의 인식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였다. 학습자의 한자음 학습 정도와 한자어 인식 정도에서 특이한 사항은 숙달도 등급에 관계없이 한자음 학습을 '무'라고 한 학습자들은 한자어 인식 정도를 '중'이라고 하였고, 한자음 학습을 '유'라고 한 한자음 독학 학습자들은 한자어 인식 정도를 '상'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 스스로의 인식에서도 한자음 학습 유무가 한자어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2> 학습자의 한자음 학습 정도와 한자어 인식

	가	나	다	라	마	바
한자음 학습	무	독학	무	무	독학	독학
한자음 학습방법		단어에서			단어에서	단어에서
한자어 인식정도	중	상	중	중	상	상

<1-2> 한자음 지식 정도 조사

위의 설문 조사와 더불어 한국 한자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자를 제시하고 한자음을 달게 하는 조사를 해 보았다.[10] 한자 제시는 49개의 1음절, 21개의 2음절어, 2개의 3음절어, 1개의 4음절어, 2개의 5음절어들이다.[11] 각 단계에 5분씩 주었다.

1음절 제시	經/際/共/關/敎/慣/弟/軍/忌/術/業/勞/獨/物/聞/房/私/回/産/界/植/用/營/完/友/員/重/刊/般/自/緣/本/電/信/責/政/道/題/鮮/中/央/接/特/航/幸/貨/情/悔/專
2-5음절 한자어 제시	空中/關係/科學/國家/機械/企業/勞動/動物/問題/放射/産業/酸化/植物/信用/言語/原子/二重/一般/資本/政策/直選/制度圈/自治制/株式投資/特別消費稅/行政自治府

<1-3> 생산적인 한자 어휘 조사

학습자들의 한자음 지식 정도와 생산적인 어휘의 양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와 선거'라는 제목으로[12] 글을 쓸 때 사용될 수 있는 어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먼저 한국어로 쓰게 하였고, 다음에는 자신의 모국어 어휘로 쓰게 하였다. 이는 모국어 어휘 지식과 한국어 어휘 지식 사이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글의 주제를 '정치와 선거'라는 고급 단계의 것을 선택한 이유는 이후 한자음 학습을 통해 한자어 어휘의 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각각 5분 동안 실시하였다.

10) 여기에 제시된 한자와 한자어들은 이충우(1992:52)에서 복합어를 이루는 데 생산적이고 대표적인 한자 어휘에 사용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11) 이 실험과 함께 한자음을 제시하고 한자를 쓰게 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다면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12) 이러한 주제가 고급 학습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나, 언어 숙달도에 관계없이 '정치와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을 전제로 글을 쓰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른 주제들보다 공정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선택하였다.

<1-4> 수용적인 한자 어휘 조사

학습자들의 한자음 지식 정도와 수용적인 어휘의 양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와 선거'라는 제목의 글을 신문에서 발췌, 부분 개작하여 제시하였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자어라고 생각되는 것에 밑줄을 긋게 하고 한자로 바꾸어 보게 하였다. 또 그 이해 정도를 %로 학습자 스스로 표시해 보게 하였다. 주제를 '정치와 선거'라고 한 것 또한 등급에 관계없이 한자음과 한자어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10분 동안 실시하였다.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 간에 서로 인신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국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젊은 시절 극좌 전력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수세에 몰린 정 후보가 의회에서 상대방 후보를 욕하면서 두 후보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신속하게 두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특집 기사로 내고 있다. 한 일간지에서는 '국민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며,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두 후보의 계속되는 발언에 촉각을 집중해야 한다." 고 했다. 또한 공정 선거 캠페인을 통해 부정 선거를 근절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학습 전 단계에 소요된 시간은 총 30분이다.

<2> 학습 단계[13]

<2-1> 학습 1단계 - 한자음 인식 단계

이 단계에서는 먼저 한자음 학습을 통한 한자어 어휘 확장을 위

13) 여기에서 제안하는 학습 단계의 모형은 절대적인 교수 모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한자음 학습을 위해 필요한 단계가 다양한 차원으로 보완되거나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첫 단계로 한자음 인식 학습을 하였다. 한국어의 한자음에 무엇이 있고, 그 한자음에 어떤 한자들이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에게 한자음과 해당 한자가 함께 제시된 자료를 하루 전에 미리 주고 한 번씩 읽어보거나 외워 오게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별도로 인식 단계를 교실 수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자권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한자는 모두 아는 상태이고, 한국 한자음에 대한 기억 학습이 위주였기 때문에 '인식을 하게 하는 단계'로서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실험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한자의 양을 조절하거나 시간을 조절하여 초급, 중급, 고급 등 숙달도에 따른 한자음과 관련된 '인식 단계의 수업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14] 제시된 한자는 '漢字能力檢定用 常用漢字 2000字'를 바탕으로 하였다.[15] 2,000자의 한자에 해당되는 한국 한자음은 괄(括), 굉(宏), 귤(橘), 끽(喫), 잉(剩), 즙(汁), 촬(撮), 팽(彭), 힐(詰)의 9발음을 제외하면 '가'부터 '희'까지 421개이다. 시

14) 익명의 심사자 중에는 이 단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어 어휘의 차이점에 대한 학습과 한·중·일 한자음의 차이에 대한 기초 학습 과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수 모형의 목적은 한·중·일의 한자음의 음가 학습이나 한자어 어휘와 한자어 구조에 대한 지식 전달에 있지 않고, 한국 한자음의 학습을 통해 스스로 메타언어적으로 한국 한자음이 모국어 한자음과 다름을 인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었다. 따라서 어렵게 다가가는 교수 모형으로 한·중·일 한자음 음가 학습이나 한자 어휘 차별성 학습은 교수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그러나 한자어 학습 시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그러한 음가나 구조적 차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15) 여기에 제시된 2,000字는 漢文敎育用 基礎漢字 1,800字에 常用漢字 200字를 더한 것이다. 김중섭(1997), 손연자(1992) 등에서는 교육용 기초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를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고, 강현화(2001)과 김지형(2001)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나오는 한자어와 외국인 교육용 어휘 자료에 포함된 한자어 중에서 한자와 한자어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자어 어휘 확장에 목표를 두고 '한자교육용 상용한자'를 대상으로 뽑았다.

간은 1시간 정도 사용하도록 하였다.[16]

<2-2> 학습 2단계 - 한자어 형성 학습 1(한자 포함어 만들기)

학습자들에게 한자(漢字)를 하나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소리 내어 읽게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그 한자가 들어가는 2음절, 3음절, 그리고 가능하면 4음절 이상의 한자어를 만들게 한다. 이 과정은 30분 정도에 어느 팀이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겨루었다. 이는 똑같은 한자를 통해 다양한 어휘가 생성될 수 있다는 한자어 생산에 주력함과 동시에 만들어진 한자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예 1) 가(家): 가정(家庭), 전문가(專門家),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
예 2) 가(價): 가치(價値), 매매가(賣買價), 정찰가(正札價), 할인 가격(割引 價格)

<2-3> 학습 3단계 - 한자어 형성 학습 2(한자어 말 잇기)

학습자들에게 한자(漢字)를 하나 제시한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먼저 그것으로 시작하는 한자어를 형성하게 한다. 그 다음 사람은 만들어진 한자어의 끝말을 이어서 새롭게 단어를 형성한다.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한자와 한국 한자음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하며, 다양한 한자어에 접할 수 있게 하여 어휘력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20분 정도의 시간

16) 실질적으로 1시간에 421개의 한자음을 처음부터 외우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모국어 한자음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이므로 아예 불가능한 작업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단계는 단지 한자음 학습을 위한 도입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 한자음에 대한 인식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단계는 필요에 따라 여러 시간에 걸쳐 나누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한자를 나누어서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을 할애하였다.

예 3) 병(病) - 병원(病院) - 원장(院長) - 장점(長點) - .....

<2-4> 학습 3단계 - 한자어 형성 학습 3(받아쓰기)

첫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구두와 문자로 제시하고[17] 거기에 맞는 한자어를 만들어서 (1)번 답란에 한자로 쓰도록 한다. 두 번째는 앞에서 제시한 단어를 설명하고 (2)번에 쓰도록 한다. 이 때 설명에 따라 학습자가 쓴 한자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읽어주고 답을 쓰도록 한다. 이는 고립된 한자어에서부터 맥락이 있는 한자어 모두를 이해하고 다시 재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한자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인지 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학습이다. 이번 학습에 사용된 어휘는 '정지(停止)하다, 호흡(呼吸)하다, 불평(不平)하다, 남매(男妹), 저서(著書), 냉정(冷情)하다, 암살(暗殺), 전교(全校), 참정권(參政權), 해동(解凍)시키다'의 10개이다.[18] 시간은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예 4) (1) 정지(停止)하다 (2) 멈추다, 서다 (3)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정지했다.[19]

17) 문자로 함께 제시한 것은 구두로 제시했을 때 듣기 능력이 문제가 되어 한자어를 만들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것이다. 물론 정확한 발음 듣기를 통한 어휘력 신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많은 시간의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평가가 아니므로 구두와 문자를 함께 제시하였다.

18) 여기에서 사용된 어휘들은 앞에서 학습한 한자 2,000자 중에서 임의로 선정된 것이다. 한자어의 인식 단계와 학습 단계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특정한 등급이나 주제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단, 세 번째 단계에서 문장을 읽어 주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도록 조정하여 2급 수료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수준을 고려하였다.

19) 이 외에 사용된 것은 다음과 같다. 2. 呼吸하다 /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 물에 빠진 사람이 호흡을 못해서 인공호흡을 했다. 3. 不平하다 / 마음에 들지 않은 일에 대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다. /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엄마에게 맛없다고 불평을 한다. 4. 男妹 / 남자와 여자 형제 / 우리 집에는 아들 2, 딸 2, 즉 4남매가 있다. 5. 著書 / 주로 학문적인 책을 쓰는 일, 또는 주로 학문적으로 쓴 책, 유명한 사람이 쓴 책 /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저서를 읽어봐야 한다. 6. 冷情하다 / 감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침착하다. 이성적이다. 차가운 감정 / 선생님은 화가 났지만 큰소리로 화를 내지 않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7. 暗殺 / 몰래 죽이다 / 스파이가 정치인을 암살하려고 왔다. 8. 全校 / 학교 전체 / 나는 우리 반에서도 1등이고 전교에서도 1등이다. 9. 參政權 /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20세부터 선거 참가와 같은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 10. 解凍시키다 / 얼음처럼 얼어 있는 것을 녹게 하다 / 전자레인지에서 고기를 해동시켜서 요리했다.

답지: (1)_____ (2)_____ (3)_____

<학습1단계>에서 <학습3단계>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다.

<3> 학습 후 단계 - 학습 결과 진단

<3-1> 한자음 인식 정도 확인 단계

<1-2>에서 제시한 1음절 한자음을 다시 제시하여 향상 정도를 5분 동안 측정하였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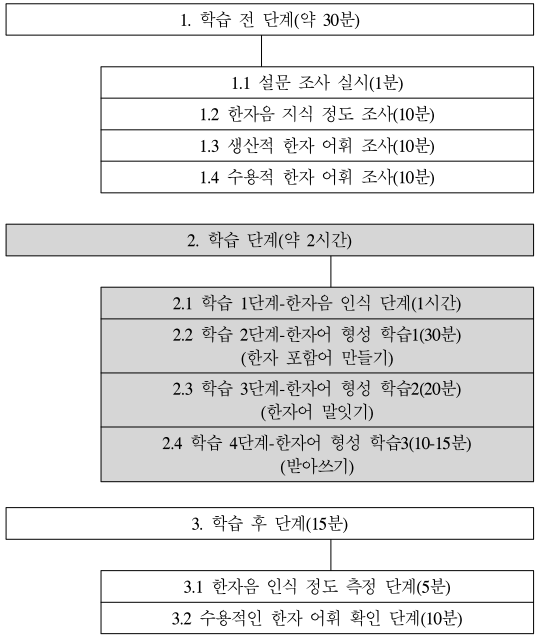
<3-2> 수용적 한자 어휘 확인 단계

<1-4>에서 제시한 '정치와 선거'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제시하여, 한자어를 찾고 한자로 쓰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이해 정도를 역시 %로 적어 보게 하였다. 한자음 학습과 한자어 학습 결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역시 10분이 제시되었다.

20) 이 실험에서는 1음절 한자음만 제시하였으나, 2음절 이상의 한자음을 제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 후 결과 진단 단계에서는 15분이 소요되었다.

지금까지의 <한자음 교수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교수 모형 중 실제 한자음 교수 현장에서는 '학습 단계'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한자음 교수 모형

3. 한자음 학습 결과

1) 한자음 학습 전후 비교

한자음 지식 정도와 어휘 생산과 이해의 관계를 학습 전 단계와 학습 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 전 단계

학습 전 단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표 3> 학습 전 단계 결과(괄호 안은 한자음 맞춤법 오류)

학습자 \ 항목		한자음 학습 경험	1음절 49	2음절 26	'정치와 선거' 한국어 생성	'정치와 선거' 모국어 생성	'정치와 선거' 한자어 인식, 정답, 이해율(학생 느낌,실제)/48
가 2급	학습전	무	40(5)	16(3)	8개	21개	43, 14, (5%, 29%)
나 2급	학습전	유	48(2)	26(3)	22개	24개	44, 29, (40%, 60%)
다 4급	학습전	무	40(3)	19(4)	16개	24개	39, 21, (30%, 43%)
라 4급	학습전	무	37(3)	21(2)	2개	5개	45, 25, (50%, 52%)
마 5급	학습전	유	45	26(1)	24개	24개	48, 40, (95%, 83%)
바 6급	학습전	유	44	26	24개	24개	48, 40, (95%, 83%)

첫째, 1음절 한자어와 2음절 한자어의 경우를 보면 다른 결과를 보인다. 1음절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유사하게 맞혔다. 이는 1음절에 선택된 어휘가 생산적이고 대표적인 한자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때는 이미 학습된 어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자음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음절 한자어의 경우는 급별로 그 정답 맞힌 수가 비례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한자음 지식이 있는 2급 학습자 <나>의 결과(26개)가 그렇지 않은 2급 <가>(16개), 4급 <다>(19개), 4급 <라>(21개) 학습자의 결과보다 더 좋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급의 <가> 학습자는 機械, 資本, 政策, 制度圈, 株式, 投資, 自治制, 直選, 特別消費稅, 行政自治府 등을 틀렸는데, 이 단어들은 2급 학습자에게는 어려운 어휘로 한국어로 본 적이 없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4급 학습자인 <다>, <라> 학습자도 放射, 制度圈, 株式 投資, 自治制, 行政自治府 등을 어려워했다.

둘째, 한자어 생성과 이해에 있어서도 한자음에 대한 학습 경험이(독학으로라도) 있는 학습자 <나>(22개, 60%)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같은 숙달도의 <가>(8개, 29%) 학습자보다, 그리고 4급의 <다>(19개, 43%), <라>(21개, 50%) 학습자와 비교해서도 좋은 어휘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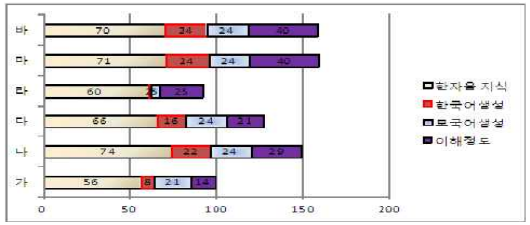
셋째, 각 학습자들의 생성 어휘를 비교해 보면 <표4>와 같다. 이 결과는 학습자간의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국어 생성과 모국어 생성 시 어휘의 차이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국어 생성을 했을 때 <가> 학습자는 21개의 어휘를 생성했는데, 한국어 어휘 생성 시 '연설, 경제, 대통령, 국회, 뇌물, 외교, 당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가> 학습자가 '정치와 선거'에 대한 모국어 지식은 있으나 이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학습자 생성 어휘

	한국어 생성	모국어 생성
가	연설, 당선, 경제, 한나라당, 대통령, 뇌물, 국회, 외교	후보자, 무소속, 정당, 국회, 예산안, 연설, 참의원, 중의원, 내각총리대신, 연립내각, 뇌물, 사임, 공약, 낙선, 汚職사건, 내각불신임안, 외교문제, 교과서문제, 대통령, 발언, IT
나	개인, 회의, 국가, 의원, 선택, 국회, 제한, 지방, 의회, 지역, 독재, 독립, 재판, 입법, 단체, 법률, 체질, 당선, 자치, 부정, 정의, 경제	의회, 독재, 의원, 공화제, 의장, 공화국, 당선, 부정, 선출, 정의, 입법, 중앙집권, 법률, 권리, 법정, 인권, 공선거법, 단체, 지방의회, 회의, 중앙의회, 경제, 정치가, 경기
다	경제, 기업, 사업, 사장님, 정치가, 회장, 국회, 군인출신, 의원, 졸업대학, 법, 지역, 사회, 당원, 의회, 대통령	경제, 투표, 선거법, 국회, 의회, 의원, 대통령, 기업, 사회, 지역, 사업, 주민, 권리, 헌법, 회장, 수상, 도시, 공공, 실시, 경찰, 시장, 시역소*(*-해독 불가 표시), 고시
라	민주, 투표	선출, 투표, 대표, 결과, 사회주의
마	뽑다, 행정 고시, 국회, 뇌물, 의원, 교육부, 지방자치제, 정당, 후보자, 공산당, 데모, 사회주의, 대통령, 민주주의, 총리, 조약, 수상, 외교관, 청와대, 시장, 직접선거, 국회의사당, 간접선거, 의원 입법제	국회, 정당, 의원, 공산당, 지방자치제, 의원 입법제, 후보자, 내각, 대통령, 대신, 총리, 가두연설, 수상, 보궐선거, 청와대, 낙선, 직접선거, 당선, 간접선거, 야당, 행정고시, 여당, 교육부, 이대 정당제
바	고르다, 간접선거, 뽑다, 뽑히다, 남북정상회담, 연설, 예산통과, 선전, 떨어지다, 대통령, 당락, 공사, 투표권, 국회의사당, 정치가, 국회의원, 정치자금, 투표, 뇌물, 한나라당, 민주주의, 직접선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가, 공산주의, 행정개혁, 국제연합, 투표, 뇌물, 입후보, 연설, 수상, 공약, 중의원의원, 선전, 참의원의원, 대통령, 국회의사당, 국제원조, 예산심의, OECD, 국회중단, 민주주의, 선거속보, 사회주의, 당락, 사회주의

넷째, 학습자 특성에 따른 내용을 살피면, 학습자 <라>의 경우 '정치와 선거'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 위한 어휘 생성에 있어서 한국어로도 모국어로도 각각 2개와 5개밖에 생성해내지 못했다. 학습자 스스로 말하기를,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치와 선거'라는 제목으로는 별로 쓸 말이 없다는 것이었다.[21] 따라서 이 경우는 타당도 있는 결과는 아니다.

이상으로 한자음 학습 전 한자음 인식과 어휘 생성 및 이해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한자음의 인식(1음절, 2음절) 정도에 따라 한국어 생성과 모국어 어휘 생성이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으며[22], 이는 한국어 이해에 있어서 그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한자음 지식과 어휘력(학습 전 단계)[23]

21) 이는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였다. 5급, 6급의 고급 화자라면 이미 학습된 어휘력으로 생성이 가능했을 것이지만, 4급의 학습자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어려웠을 것이다.

22) 한국어 생성 어휘와 모국어 생성 어휘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23) <그림 2>에서 실험 참가자 '라'의 결과 중 어휘 생성이 다른 참가자와 다르게 2개와 5개로 나타나는 것은 각주 22)와 관련된 이유 때문이다. 어휘 생성 부분에서는 예외적인 결과이지만, 한자음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해 정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자음과 한자어 학습 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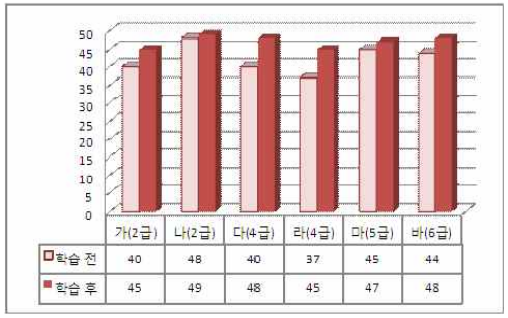
이 단계에서는 1음절 한자음 인식 정도와 수용적 한자어 이해율을 점검해 보았다. 학습 전과 학습 후의 결과를 모두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 학습 전후 결과 비교

학습자 \ 항목		한자음 학습 경험	1음절 49	'정치와 선거' 한자어 인식 정답, 이해율 (학생 느낌, 실제)/48
가 2급	학습전	무	40(5)	43, 14, (5%, 29%)
	학습후		45(1)	48, 29, (40%, 60%)
나 2급	학습전	유	48(2)	44, 29, (40%, 60%)
	학습후		49(1)	48, 45, (100%, 94%)
다 4급	학습전	무	40(3)	39, 21, (30%, 43%)
	학습후		48(3)	48, 41, (80%, 85%)
라 4급	학습전	무	37(3)	45, 25, (50%, 52%)
	학습후		45(1)	47, 36, (80%, 75%)
마 5급	학습전	유	45	48, 40, (95%, 83%)
	학습후		47	48, 45, (100%, 94%)
바 6급	학습전	유	44	48, 40, (95%, 83%)
	학습후		48(1)	48, 48, (100%, 94%)

첫째, 1음절 한자음 인식 정도는 학습 전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에 따르면 6명의 학습자 모두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인식에 향상도를 보이고 있다. 한자음 학습 경험이 전무한 학습자 <가,>, <다>, <라>의 경우에는 모두 5개, 8개, 8개로 한자음 인식 정도가 향상했으며, 한자음 독학 학습 경험이 있는 2급의 학습자 <나>뿐만 아니라 고급의 <마>, <바> 학습자들

까지도 1음절 한자음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학습자들에게 체계적인 한자음의 학습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2급)	나(2급)	다(4급)	라(4급)	마(5급)	바(6급)
학습 전	40	48	40	37	45	44
학습 후	45	49	48	45	47	48

<그림 3> 학습 전후의 1음절 한자음 인식 정도 변화

둘째, '정치와 선거'에 대한 한국어 텍스트를 주고 한자어를 인식하는 수용적 한자어 이해율을 한자음 학습 전과 후로 비교해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을 보면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휘력의 정도가 향상되고 있다.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그 향상 정도의 폭이 적어지는 것은 한자음과 한자어 학습의 시기가 초급과 중급에서 더 타당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은 학습 전의 '전쟁과 선거' 이해도 측정을 학습 후에도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며, 한자음 학습과 한자어 학습이 이 주제를 위한 어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한자음 학습과 한자어 학습이 하나의 학습 전략이 되어 학습자들의 한자어 이해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4> 학습 전후 '정치와 선거' 한자어 이해 어휘

셋째, '정치와 선거' 한자어 이해율에 대한 학습자 스스로의 느낌을 표시하게 한 것을 보면 학습 전후에 그 수치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 전에는 한자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 <나>를 비롯한 초급과 중급 학습자들이 자신의 느낌상의 이해율을 5~50% 정도로밖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응답을 보면 그에 비해 이해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자어 학습 경험이 있는 고급 학습자 <마>, <바>는 95%로 이해한다고 하였으나 그 결과는 83%로 나타나서 스스로 더 이해율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 반면 학습 이후의 수치를 보면 40%~100%로 스스로의 이해율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응답을 통한 이해도도 이에 비례하여 학습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습자 <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습 전과 후에 40%이던 자신감이 학습 후에는 100%의 자신감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자음 학습 단계를 통해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학습자들이 모두 한자어 이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자음 학습 단계에 대한 평가

단계별 한자음 학습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자유롭게 소감을 쓰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와 실험 후 교사의 평가를 학습 단계에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자어 인식 학습 단계에 대하여
① 한자음 사전 자료가 생긴 것에 대한 만족한다.(학생)
② 학습자 혼자 하는 확인 학습이 지루하다.(학생)
③ 학습자 모국어와 다른 한자어 학습의 문제를 알 수 있다.(교사)
④ 한자음의 발음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24](학생, 교사)

이 단계 평가를 통해서는 학습자들에게 한자음 학습을 위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한자음 발음 문제와 한자어 학습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혼자서 한자음 인식 학습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지루함에 대해서는 수정된 학습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한자음 포함 어휘 생성 학습 단계
① 학습자의 흥미와 도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성취감이 있다.(학생)
② 2음절과 3음절 어휘 형성은 용이하나 4음절 이상 어휘는 다소 어렵다. 그러나 복합어 형성으로 전환하는 학습자들의 유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가족, 가족제, 핵가족 제도 등)(학생, 교사)
③ 1음절 한자어의 다양한 출현의 발견이 가능하다.(가족-전문가 / 수건-가수 등)(학생)
④ 음성과 문자의 동시 학습이 가능하다.(학생)

24) Stevick(1976)은 어휘 학습은 침묵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발음하면서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학습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학습 단계에 대해서 재미있었고, 뭔가 많이 향상한 느낌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한자음이 다양한 한국 한자 어휘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는 학습과 함께 음성과 문자를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교사는 4음절 이상의 어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교수 기법을 개발하고 유도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한자어 말 잇기 학습 단계
① 학습자 흥미와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학생)
② 다양한 한자어를 접할 수 있고 성취감이 든다.(학생)
③ 1음절에 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한자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학생)
④ 불가능한 한국 한자어를 파악할 수 있다.(掠奪 - *奪回(=奪還)/ *奪首)(학생, 교사)
⑤ 동일 한자가 다른 음으로 사용되는 예를 파악할 수 있다.(학생)
⑥ 음성과 문자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극장-장소-소용-용변(用便)-편지(便紙)-지질-질문-문제-제목-목적지-지방-방정-정확-확실-실물-물의-의회-회담-담화-화술-술수-수학-학생-생일-일기-기사-사건-건수-수리-이과-과학-학교-교가-가수-수동-동물-물질-질량-양산-산업-업종-종자-자손-손녀-여성-성별-별리-이산가족)(학생)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흥미와 성취감 유도를 유지하면

서도 위의 ②, ③, ④, ⑤와 같이 학습자의 모국어와 달리 사용되는 한국 한자어의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한자어 받아쓰기 단계

① 평가적 요소로 적당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성취감이 있다.(학생)
② 발음과 문자의 불일치로 인한 잘못된 어휘 추측 등 학습자의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교사)
③ 어휘 이해 단계를 제시하여 다양한 추측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자어를 고립해서 제시하였을 때 해당 어휘 추측하기 전략 사용 → 한자어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해당 한자어 추측, 확인 → 사용된 문맥을 통해 한자어 의미 추측, 확인 및 어휘 출현 환경 확인[25](예시: 호흡하다 / 숨을 들이쉬고 내쉬다 / 물에 빠졌던 사람이 숨을 안 쉬어서 인공호흡을 했다.)
: 학습자 답안 예시 1) 호흡?하다 2) 呼吸하다 3) 呼吸하다 (교사)

이 단계는 한자음 학습을 정리하는 평가적 단계로 학습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단계가 부정적이기보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사는 학습자의 전략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이후 한자음과 한자어 교수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25) 김익환(1999:158)에서는 어휘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르는 단어를 문맥에서 유추해내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4. 한자음과 한자어 학습 방안에 관한 기타 논의들

이상의 연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한자음과 한자어 학습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초적 논의를 펼칠 수 있다.

(1) 한자음 학습 단계

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음 학습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초급(1,2급)부터 한자음 학습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자음에 대한 인식 단계로서만 기능하고 지나치게 강조될 필요는 없다. 한국 한자음은 1개의 음을 가지고 있다는 지식 정도, 생산적인 한자어만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둘째, 초급 단계의 한국어는 기초 어휘로 고유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어를 강조하게 되면, 필수적인 어휘 학습을 방해할 소지도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어휘들은 고유어화된 한자어[26]가 많아서 한국인들도 한자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중급부터 한자음에 대한 정리 학습과 한자어 형성과 이해를 위한 학습으로 어휘 학습 전략을 키워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초급과 중급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를 한국어 교육 어휘에서 추출하여 학습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고급 단계에서는 학습 목적에 맞는 소수의 전문적인 한자

26) 한자어의 고유어화는 한자어를 한자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충우(1997:86)에서는 빈도가 높은 기초 어휘에는 고유어가 많게 나타나는데 이를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고유어가 많이 쓰인 결과로 보이며, 소수의 한자어가 포함된 것은 그 소수의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이를 한자어의 고유어화라고 하였다. 한자어는 국어 빈도순 1-100에서는 7%, 901-1,000에서는 51%, 2,401-2,500에서는 63%를 차지한다.(이충우, 1997:86 재인용)

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자음 학습 시 제시 방안

한자음 학습 시 제시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한자어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많은 한자어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소 지루한 경향을 가질 수 있어서 흥미 유발을 위한 교수 기법이 요구된다.

둘째, 주제·기능별로 한국어 숙달도에 맞게 내용면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3)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 향상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27]

첫째, 양적 어휘력 확장을 위해 어휘 확장 전략 학습이 등급별로 요구된다.

둘째, 질적 어휘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한자음 학습 2, 3 단계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① 접사 기능 한자어 분류 : -社, -主義, 不-, 未, -感 등

② 결합 환경 연구 및 사전에 등록: 고유어+한자어(場날) / 한자어+한자어(市長) / 한자어+외래어(百마일, 시사저널) / 한자어+고유어+외래어(은빛스카프)[28]

③ 1음절로 가능한 한자어 제시 : 勸하다 / 願하다 / 親하다 / 辱하다 / 毒하다 등

④ 한자어가 한국어로 사용될 때의 특성 파악 : 명사로, 동사로, 형용사로 쓰이는지, 어떤 어휘와 결합되는지에 대한 정보(중국 학습자의 경우 : 중국에서는 이처럼 강경한 *정책한다.[29])

⑤ 한자어의 특질 파악 필요 : 경어나 완곡어법으로 사용되는 특질 등

⑥ 한자어의 출현 맥락 및 상황, 다른 어휘와의 관계

(4) 학습자 언어권별 특성 감안

첫째, 동일 한자어가 언어권별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예들이 정리되어야 한다.(愛人(한, 중, 일 순서: 사랑하는 사람, 부인, 정부) / 質問(물어서 밝힘, 問責, 0(없음)) / 工夫(학습, 餘暇, 窮理)[30])[31]

둘째, 같은 의미인데 다른 한자로 표현되는 자료들이 정리되어야 한다.(공부(한국-工夫, 일본-勉强) 등[32])

5) 다양한 한자어 학습 방안 마련

첫째, 양적 어휘력 신장을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한자음 학습을 통한 한자어의 양적 어휘력 신장을 모색해 보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수 모형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27) 양적 어휘력은 어휘의 양을 말하며, 질적 어휘력으로는 어휘의 형태(발음과 철자, 단어의 구조), 어휘의 의미(여러 의미, 다른 단어들과의 의미 관계), 어휘의 화용(단어의 기능과 상황에 따른 사용의 제약, 적절하고 효과적인 단어의 사용, 상황에 따른 적절한 단어의 의미 파악, 빠르고 효과적인 단어 처리)을 들 수 있다.(이영숙, 1995:15, 김광해, 1997:16에서 재인용)

28) 이충우(1997:91)에 형태적 결합 양상이 제시되었다. 예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것으로 복합어까지 포함하였다.

29) 정책(政策)은 서술성 명사가 아니므로 기능 동사 '-하다'와 바로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고, '정책'을/으로 내놓다, 펴다와 같은 동사와 결합된다.(김유정, 1994 참조)

30) 質問, 工夫의 예는 김광해(1989:44)에서 발췌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김중섭(1997)에도 몇 예가 제시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예들은 기초 한국어로 굳이 한자어임이 강조될 필요는 없다.

31) 이는 언어권별로 한자음과 한자어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2)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한자어가 한국에서는 외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료 정리도 필요할 것이다.
예) 中心-센터

것이다.

둘째, 언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 개발되어야 한다. 한자어 학습이 어휘 학습의 측면에서 어휘 확장뿐 아니라 언어 기능적인 측면 즉, 실제로 쓰고 이해하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한자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자음' 학습을 통한 한자어 어휘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고 교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실험을 한 후에 그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실험은 크게 '학습 전 단계-학습 단계-학습 후 단계'로 설계되었다. 학습 전 단계에서는 '설문조사 실시-한자음 지식 정도 조사-생산적인 한자 어휘 조사-수용적인 한자 어휘 조사'로 학습자의 한자음 학습 전 상태를 알아보았다. 학습 단계에서는 '인식 단계-한자어 형성 학습1(한자 포함어 만들기-한자어 형성 연습2(한자어 말잇기)-한자어 형성 학습3(받아쓰기)'로 이루어져서 한자음에 대한 학습과 이를 기반으로 한자어 형성 연습을 통해 어휘 확장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습 후 단계는 '한자음 인식 단계-수용적인 한자 확인 단계'로 한자음 학습과 한자어 형성 학습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았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음 학습으로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어휘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한자음 학습과 이후 한자어 형성 학습을 통해 한자어 이해 어휘뿐만 아니라 생성 어휘도 함께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한자음 학습 시기는 초급과 중급에서 더 타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자음 학습을 위한 교수 모형의 개발이라는 의의와 함께 한자음 학습의 유용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4장에서 언급한 한자어 학습을 위한 논의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화, ' 한국어교육용 기초 한자어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어휘를 바탕으로 ',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pp. 53-71.

강현화 · 김창구, ' 어휘력 신장을 위한 기본 한자어의 조어력 조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 · 2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1, pp. 179-201.

국립국어연구원, ' 한국어 학습용 어휘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2002.

靳葆强, ' 중국인 學習者 한국어 漢字語 습득 연구 , 『語文硏究』 15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pp. 445-470.

김광해,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 국어학회총서, 탑출판사, 1989.

김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1993.

김유정, 『국어 복합술어구문 연구 - 기능동사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4.

김익환, ' 효과적인 영어 어휘 지도 방법 , 『영어 교수 · 학습 방법론』. 한국문화사, 1999, pp. 155-184.

김지형, '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기본한자의 선정-초, 중급 한자를 중심으로 ', 『어문연구』 11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pp. 377-402.

김지형, '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자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 전공 및

전공 예비 과정 학습자를 중심으로」,『한국어교육』2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pp. 125-149.
김진아,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를 통한 중국어 어휘 습득이 중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통번역연구소 논문집』 9,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05, pp. 22-36.
김훈태, 「해외(海外) 한국어(韓國語) 학습자(學習者)를 위한 한자(漢字) 및 한자어(漢字語) 교육방안(教育方案) - 베네치아대학(大學)을 중심(中心)으로」,『한자한문교육』 2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2, pp. 563-591.
문금현, 「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0, pp. 21-61.
문금현,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한자어 학습 방안」,『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2003, pp. 13-35.
박덕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력 신장 연구(I) - 한국어 漢字 및 漢字語를 중심으로」,『언어와 문화』 5-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pp. 85-103.
손연자, 「비한문 문화권의 외국인에 대한 한자 교육 방법론 소고」,『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84, pp. 81-101.
염창권, 「중국 학생을 위한 한자어 음가 지도 방안」,『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2011, pp. 245-273.
오은희,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추측전략 분석 연구 - 한자권-비한자권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윤윤진,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자어 어휘교육을 강화할 필요성과 그 대안」,『한국언어문화학』 5-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pp. 177-193.
윤재민, 「외국인(外國人)을 위한(爲限) 한국어교육(韓國語教育)에 있어서의 한자교육(漢字教育)」,『한문교육연구』 38,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pp. 5-19.
이용주, 「한국어 어휘 체계의 특징 」,『국어 교육』 15, 한국어교육학회, 1969, pp. 45-64.

이충우, 「어휘 교육과 어휘의 특성 」,『국어 교육』 95, 한국어교육학회, 1997, pp. 83-108.
한재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자어 교육을 위한 기초적 연구 : 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2003, pp. 327-367.
Brown,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Prentice Hall Regents, 1992.
Evelyn Hatch & Cherly Brown, *Vocabulary. Semantics. and Language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Ronald Carter and Michael McCarthy,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 1988.
Seal, *Vocabulary Learning and Teaching.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Second Edition. Heinle & Heinle Publish, 1991.
Stevick. E *Memory. meaning and method. Rowley.* Mass.: Newbury House, 1976.

The Study of Sino-Korean Words Education Using Sounds of Sino-Korean: For KFL Learners from Japan and China

Kim, You-Jeong

This paper focus on Sino-Korean education especially for students from Chinese cultured countries and investigated for 'Sounds of sino-Korean' learning affects how to improve the Sino-Korean vocabulary. For Before Learning - During Learning - After Learning step of the learning model developed and examined its usefulness by experiments. The experimental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ⅰ) Learner's Sino-Korean vocabulary Has improved through Sounds of sino-Korean learning. (ⅱ) Sounds of Sino-Korean learning and the formation of Sino-Korean has improved learners' understanding of the vocabulary and expressive vocabulary. (ⅲ) Sounds of Sino-Korean learning time is more relevant at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 Therefo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Sounds of Sino-Korean learning model and will also be able to have a significance in that it confirmed the usefulness of the Sound of Sino-Korean learning.

Key words: Sino-Korean, Sound of Sino-Korean, Japanese Learners, Chinese Learners, Learnign for Sino-Korean Vocabulary, Teaching Model for Sound of Sino-Korean

김유정
소속: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주소: 130-762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래미안 2차 209-501
전화번호: 010-9349-7131
전자우편: youjeong@korea.ac.kr

이 논문은 2013년 3월 10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30일 게재 확정함.